

스페인, 80년만에 첫 결승 진출

한골로 영웅...무적함대 수비 핵



푸을 결승 헤딩골 독일 격파

정복자 푸을 스페인의 센터백 푸을(가운데)이 8일(한국시간) 더반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뽑아낸 뒤 동료들과 일사단결 기쁨을 나누고 있다. (더반(남아공) | 신화 연합뉴스)

4강전 결승골 푸을 누구?

월드컵에서 2번의 눈물을 곱씹었던 카를로스 푸을(32·바르셀로나)이 '해결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푸을은 8일(한국시간) 독일과의 남아공월드컵 4강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결승진출을 책임졌다. 그가 3번의 월드컵에서 참가해 넣은 유일한 골이었지만 그 값어치는 다비드 비아가 기록한 5골 못지않았다. 남아공월드컵 이전까지 푸을에게 월드컵 무대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8강에서 한국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짐을 싣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는 16강전에서 프랑스에 1-3으로 패해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유럽을 제패했고, 스페인대표팀으로 2008년 유럽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그는 '블루 워커(Blue Worker)'로 불린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터프한 수비로 스페인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수비 뿐 아니라 오른쪽 풀백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 6경기를 치르며 단 2골만 허용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벽을 구성하는데 푸을의 역할이 매우 컸다. 바르셀로나에서 주장을 맡으며 수비라인을 지휘하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스페인의 수비라인을 책임지고 있다. 준결승에서도 막강 화력의 독일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스페인 팀 보스케 감독은 "독일전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푸을의 한 골만으로도 충분했다"며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수비에서부터 공격수까지 모든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화려한 라인업을 갖춘 팀의 특성상 푸을은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준결승에서 귀중한 결승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정열의 플라멩코, 전차군단 혼 뺐다

징크스를 넘어...

역대 월드컵 1부 2패 독일전 열세 극복 2008유럽선수권 이어 또한번의 설욕전

화려함을 뽐내다

화려한 패스·공격축구로 경기 완전장악 '선수비 후역습' 실리 덕한 독일에 KO승

'무적함대'의 위용은 대단했다.

팀 보스케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8일(이하 한국시간) 더반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4강전에서 후반 28분 푸을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전차군단' 독일을 1-0으로 꺾고 월드컵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12일 오전 3시30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대망의 결승전을 갖는다.

독일에 진 스페인은 82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1-2로 무릎을 꿇었다. 1994년 미국 대회 조별리그에서 격돌한 양 팀은 1-1로 비겼고, 나란히 16강에 오른 바 있다. 스페인은 2008 유럽선수권에서 독일을 결승에서 1-0으로 꺾고 메이저 대회 정상에 선 데 이어 또 다시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반면, 독일은 잃은 게 너무 많았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20년 만의 정상을 노렸지만 스페인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독일은 최근 3개 대회 연속 4강 진출에 만족해야만 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페르난도 토레스는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았으나 1-0으로 불안한 리드를 잡고 있던 후반 35분에 투입시켜 끝까지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가려 했다. 최근 4경기 연속 골(6점)을 사냥했던 스트라이커 다비드 비아를 원 톱으로 이니에스타-페드로 등을 공격진에 포진시킨 스페인은 초반부터 독일을 강하게 몰아쳤다. 최종 볼 점유율은 5대5로 거의 대등했지만 하프타임 이전까지는 거의 7대3으로 압도했다. 독일은 평소와는 달리 지나치게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다. 요아힘 뢰프 감독은 수비로 일관하던 경기의 양상을 바꾸기 위해 양 선을 후반에 투입해 반전을 꾀했으나 끝은 오히려 스페인의 몫이었다. 후반 중반이 갖 지날 무렵, 사비가 왼쪽에서 피운 코너킥을 공격에 가담한 센터백 푸을이 방향을 살짝 바꿔 놓는 헤딩으로 승부를 갈랐다. 스페인의 '공격 양모' 전략이 독일의 '실리 축구'에 승리한 셈이었다.

12일 새벽 네덜란드와 운명의 결승전

월드컵 4강전 경기결과

스페인 1 - 0 독일

푸을 결승골 후 : 28분

● 징크스를 깨다 이번 승리는 스페인에 각별했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 13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유독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호' '최강'이란 각종 수식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1950 브라질월드컵에서 4위에 오른 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항상 '운이 없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지만 이번에 실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징크스를 모조리 깰 것도 남달랐다. 스페인은 유독 독일에 약했다. 이날 경기 이전까지 양 팀 역대 전적에서 스페인은 6승 6무8패로 밀렸고, 월드컵에서는 1무2패의 열세였다. 1966년 잉글랜드 대회에서 1-2로

● 화려함이 '실리' 잡다 남아공월드컵의 특징 중 하나로 뒷부분부터 철저히 단속한 뒤 골 사냥에 나서는 '실리 축구'가 꼽힌다. 그러나 스페인은 '실리'가 아니다. 공격에 올인하던 스페인의 전통 스타일에 정교한 패스를 통한 높은 볼 점유율과 공수의 완벽한 밸런스를 결합시킨 팀 보스케 감독은 여전히 화려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강조한다.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스페인-독일 4강전 주요 기록

스페인	기록	독일
13(8)	슛(유효슛)	5(2)
51%	볼 점유율	49%
81%	패스 성공률	75%
7810m	평균 뒀 거리	7980m
21km/h	평균 시속	22km/h
7	파울	9
1	오프사이드	2
7	코너킥	6

유효 슛 8:2... 스페인 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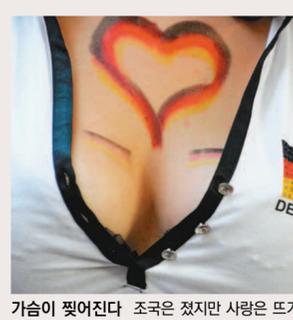
기록으로 본 스페인-독일전 스페인은 기록으로도 독일을 압도했다. 스페인이 슛, 패스 성공률 등 대부분의 기록에서 독일에 앞섰다. 볼 소유권에서 51대49로 근소하게 앞선 스페인은 슈팅수에서 13대 5로 절대 우세를 보였다. 13개 가운데 5개를 유효 슛으로 연결하며 1골을 뽑아냈다. 독일은 유효 슛 2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패스 성공률에서도 스페인이 81%를 기록하며 75%에 머문 독일을 제압했다. 스페인의 사비(바르셀로나)는 106번의 패스를 시도해 92번의 끝꿈한 연결로 86.7%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그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는 등 독일의 증원을 허무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사비는 푸을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이번 대회 2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스페인 결승행...가슴이 출출다 독일을 꺾고 '무적함대' 스페인 남아공월드컵 결승행을 확정짓자 마드리드 시내 야외 광장에 모인 스페인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마드리드(스페인) | 로이터 연합뉴스)



집씨는 독일 머리에 독일 기를 꽂은 여성 팬들이 스페인에 무너진 자국 대표팀의 경기를 베를린 시내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다 실랑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베를린(독일) | 로이터 연합뉴스)



가슴이 찢어진다 조국은 졌지만 사랑은 뜨거웠다. 독일의 한 여성 팬이 가슴 부분에 하트 문양을 새겨 놓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뮌헨(독일) | AFP 연합뉴스)

독일, '아르헨의 저주' 때문에 졌다?

독일이 '아르헨티나의 저주' 때문에 탈락한 것일까. 독일이 스페인에 저 결승진출이 좌절되자, 새삼 '아르헨티나의 저주'가 화제다. 8강전까지 화려한 공격축구를 선보였던 독일은 스페인의 정교하고 짧은 패스에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날 스페인이 독일에 패한 장면은

2006년 독일월드컵을 떠올리게 했다. 독일은 4년 전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승부차기(4-2승)로 물리쳤지만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에 연장혈투 끝에 0-2로 패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독일은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무려 4-0으로 꺾으면서 내심 우승을 기대했지만 결국

2006년에도 아르헨 잡고 이에 덜미 94-98 월드컵도 아르헨 이긴 팀 수나라 스페인의 탓에 걸렸다. 결국 두 대회 연속 아르헨티나를 8강에서 물리쳤던 독일은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패하면서 저주 얘기가 나온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통계도 아르헨티나 저주를 확인시킨다. 월드컵 무대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팀은 다음 경기에서 패한다는 내용이다.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히딩크 감독의 네덜란드가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제치고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브라질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도 루마니아는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3-2로 물리쳤지만 8강에서 스웨덴에 승부차기로 무너진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손해보험협회 상의필 제2010-1605호(2010년 6월 7일) 동부화재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생활비...
중상해 교통사고비용부담,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사고 중상에 사고 시 행사처벌 대상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저금! 부담없이 상담 받으세요!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SK 주유권 무료증정 (2010년 7월 31일까지)
부유층은 고액의 휴대전화로 문자전송도 드립니다.

5,000원 (인출 시 수수료 가능)

프리미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080-507-5500